

“몽골불교가 복원된다”

우리는선우 울란바토르에 ‘한-몽불교문화원’ 개원 몽골정부 법적 뒷받침... 한국 경제적 지원 합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산실이 마련됐다. 한국과 몽골의 불교교류를 통해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불교의 전통문화와 역사 복원에 기여하게 될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 6월24일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개원했다. 우리는선우(공통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몽골의 스님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학계 문화예술

계 인사들도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개원으로 공산혁명 이후 75년간 맥이 끊긴 몽골불교의 복원 추진과 함께 약 500년간 중단된 한-몽 불교유대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연구원 개원에 앞서 우리는선우 남지심공동대표를 비롯한 최순진명희 박길준씨 등 한국 대표단 4명은 몽골 오치르 바트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오치르 대통령은 “불교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몽골 불교문화 예술 복원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문화연구원 활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몽골 스님들과 정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몽 불교

문화연구원’ 개원식은 몽골 최대의 사찰 간다사에 주석하고 있는 총무원장 최창조스님, 문화재관리위원회장이며 예술갤러리 관장인 미산발달씨, 전통문양 연구원 박관철옹장사, 약칭 ‘일대초신문’ 발행인을 비롯하여 민족화 문예 종속 전통의 사상학자들 14명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은 우선 사업으로 전문연구위원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비로 한국측에서 매달 800불씩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몽골측 추진 인사로는 총무원장 최창조스님, 불교미술대학장 최창조스님, 문화재관리위원회장이며 예술갤러리 관장인 미산발달씨, 전통문양 연구원 박관철옹장사, 약칭 ‘일대초신문’ 발행인을 비롯하여 민족화 문예 종속 전통의 사상학자들 14명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은 우선 사업으로 전문연구위원이

중심이며 몽골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몽골불교고등학교 불교미술대학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통한 교육과 유학생교류 및 기술연수생의 한국연수의 주선 등을 펼치게 된다. 그밖에 보건소 설치 운영 등 사회사업과 문화연구원 재원미련을 위해 농장운영과 조립사업 및 독특하고 오묘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은 우리는선우가 지난 94년부터 시작한 국제불교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승보공경선우회와 국제선우회가 중심이 되어 결실을 보게됐다. 이미 94년부터 캄보디아 승단 및 불교계 지원에 이어 95년 미얀마 불교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개원식. 왼쪽은 몽골 총무원장 최창조스님, 오른쪽은 한국 대표단장 남지심씨.

인 칼라차크라 법회

북인도 쿠루마나리 따보사 창건 1천년 기념으로 열린 칼라차크라 법회가 지난 12일 불교TV ‘생방송 날마다 좋은 날’에서 화제의 현장코너로 소개됐다. 달라이라마와 정우스님의 인터뷰 장면(사진)도 소개된 이날 방송에서 달라이라마는 “한국불교와 티벳불교는 쌍둥이와 같은 존재”라는 말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서암스님 산중대담

불교TV 산중대담 ‘달야의 잣나무(PD 신현중)’는 오는 20일 오전 10시15분 서암스님을 만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80세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여전히 법을 구하는 제자와 신도들에게 칼날같은 수행을 보이고 있는 서암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몽골TV 불교아카데미

오는 9월2일 불교TV 채널 32를 통해 개강되는 ‘몽골TV 불교아카데미’의 모집요강이

백팔가요 방학특집

불교방송 백팔가요가 여름 방학맞이 특집 공개방송을 마련했다. 오는 21일 낮12시10분에 방송되는 특집 공개방송에는 소방차, 녹색지대, 마로니에, 들꽃, 덩크, 이은지 등 국내 탤런트가수와 그룹들이 출연해 여름방학에 얽힌 이야기들을 공개한다. 사회는 개그맨 남희석씨가 맡았다.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가건물에 94년 5월 원용중 총무원장 일공스님은 매입한 8백66평을 무단정착하고 계곡을 무단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스님은 94년 11월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유일하게 허가되는 경로당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해 왔던

가야산 골프장

가야산골프공원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생태계 파괴로 초래되는 온·습도 변화와 골프장 관리를 위한 엄청난 양의 지하수·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이 해안사 경관각에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 해안사 대장경 학술조사단에서 2년여에 걸친 대장경판과 해안사 장경각 건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온·습도 및 통풍, 번식생물 등의 요건이 대장경 보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과

팔만대장경 치명적 영향

생태계 파괴·온습도변화 ‘학계우려’

학적인 조사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골프장에 부러질 연간 4천~5천kg의 농약은 팔만대장경 보존에 결정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지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과의 거리는 3.5km에 불과하다. 이태원 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가야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팔만대장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찬란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곳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만대장경 보존을 우려하는 시각 외에도 환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용선 연구원(불교환경교육원)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린GNP’(GNP에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개념을 도입, 환경보호는 물론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해안골프장 건설은 국민전체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산파역 남지심씨

“국민 90%가 불자인 나라 마을마다 사찰건립 소망”

“현재 몽골은 해방직후 우리 실상과 흡사했습니다. 먹고사는 일이 큰일이더군요. 그런 속에서도 감동을 받은 것은 90% 이상이 불자인 국민들의 소망이 마을마다 잘 하나씩은 갖는 것이었습니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에 산파역을 해낸 남지심씨, 94년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등 공산혁명으로 불교전통의 맥이 끊긴 불교국가들과의 국제교류활동을 펴오면서 이번엔 몽골과 본격적인 교류를 펼칠 것이다. 2년전 ‘국제불교교류를 시작하면서 불교문화원 설립을 우

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몽골부터 문화원 1호가 개원된 것은 몽골스님들과 결혼해 현지 불교문화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김선정교수의 역할이 컸으며, 아무래도 인류학적으로 우리와 같은 뿌리라는 인연이지 싶습니다.” 한-몽 불교문화연구원의 설립 이념은 여느 문화원과 차원이 다르다. 한국불교를 심는 것이 아니라, 불교교류를 통해 몽골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되살리는데 있다. 여기에는 우리는 선우가 펴고있는 국제불교교류 활동방향이 기인한다. “몽골의 정신적 복원은 결국



은 불교복원입니다. 출가승단의 법계조차 정립이 안된 현실에서 전통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몽고전통과 역사가 되살아나게 하는것이 진정한 불자다운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가나리마다 그 나라 불교를 꽃피우는 것 그것이 가장 과제이며 화엄세계가 아닐까요?” 남지심씨의 설명이다. 그래서 훗날 “몽골의 역사가 한 국불교를 통해 몽골정신이 살아났다”고 평가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화성 그린벨트내 경로당 신축 원용중-주민 마찰 ‘법정 소송’

원용중(총무원장 일공)이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에 공사중인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회문제 제로 던지고 있다.

원용중의 경로당건립은 그린벨트지역에서 그린벨트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한마을에 한곳만이 허가되는 경로당으로 허가받아 공사하려던 주민들과 의견이 대치돼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왕’이 누구인가. 법을 살리는 주왕이라는 뜻으로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 형호다. 그런데 지난 92년 경보스님이 ‘법왕’을 자처하는 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법왕’ 문제가 4년 만에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법왕’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92년 경보스님이 “세계 불교도들에게 세계평화의 의미를 전파하고 교황청과 같은 불교세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법왕칭을 설립한 뒤 스스로 법왕

였다. 어찌보면 ‘법왕’의 측면도 강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이 사안이 경보스님의 49재도 끝나기 전에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 서글프기조차 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모스님이 법왕 추대식

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 군소종단이나 임의 단체 성격의 종단들이 법왕추대에 발벗고 나서는 사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나아가 세계를 누비며 ‘불교 법왕이네’를 자처하며 활동하지 않았으리라는 답안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법왕’ 문제는 그저 착각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안이라는 수위를 넘어서었다. 이제 불교계가 교린 호법수호를 위해 단호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 법왕’이라고 애써던 경보스님을 제재로 기리는 일도 되리라고 본다.

‘법왕’ 문제는 경보스님(일공선 성교단의 입적과 함께 ‘울 것이 왔다’는 시각이다. 또한 경보스님 관련 ‘결자해지’의 수순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 등극하면서부터다. 당시 기성교단의 반발이 표출했으나, 경보스님이 교계 원로 지도자라는 명분으로 미묘한 반목의 분위기에서 ‘법왕’ 문제에 대해 논란 자체를 삼가하며 지

을 가짐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말이 난무하다. 교계를 계통고 있다는 모씨는 “경보스님 49재가 끝나면 법왕칭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법왕추대와 관련한 세력다툼이 가시

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 군소종단이나 임의 단체 성격의 종단들이 법왕추대에 발벗고 나서는 사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나아가 세계를 누비며 ‘불교 법왕이네’를 자처하며 활동하지 않았으리라는 답안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법왕’ 문제는 그저 착각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안이라는 수위를 넘어서었다. 이제 불교계가 교린 호법수호를 위해 단호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 법왕’이라고 애써던 경보스님을 제재로 기리는 일도 되리라고 본다.

‘법왕’ 문제는 경보스님(일공선 성교단의 입적과 함께 ‘울 것이 왔다’는 시각이다. 또한 경보스님 관련 ‘결자해지’의 수순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 등극하면서부터다. 당시 기성교단의 반발이 표출했으나, 경보스님이 교계 원로 지도자라는 명분으로 미묘한 반목의 분위기에서 ‘법왕’ 문제에 대해 논란 자체를 삼가하며 지

을 가짐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말이 난무하다. 교계를 계통고 있다는 모씨는 “경보스님 49재가 끝나면 법왕칭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법왕추대와 관련한 세력다툼이 가시

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 군소종단이나 임의 단체 성격의 종단들이 법왕추대에 발벗고 나서는 사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나아가 세계를 누비며 ‘불교 법왕이네’를 자처하며 활동하지 않았으리라는 답안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법왕’ 문제는 그저 착각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안이라는 수위를 넘어서었다. 이제 불교계가 교린 호법수호를 위해 단호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 법왕’이라고 애써던 경보스님을 제재로 기리는 일도 되리라고 본다.

생활속의 불교 ⑧1

언제나 흐린 날이 계속되지 않는다

슬픔은 슬픈 생각으로 더 깊어진다. 근심은 불안한 생각 때문에 더 커진다. 분노의 불길은 그 성냄으로 인해서 더욱 치상해진다. 생각에 생각이 보태지면 보태질수록 그 생각은 크게 자라난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을 꼼짝 못하게 사로 잡는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무슨 팔자가 이렇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람’ 불행이 닥친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운데 거기에 얽매어서 밤 잠을 설쳐가며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 괴로움은 더욱 자라난다. 잃은 것은 이미 잃은 것이고 닦친 것은 이미 현실인데 그로부터 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키운다면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쯤되면 걱정도 팔자인 셈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까지 괴로움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